

세미나  
자상중계

# 2011 UN Academic Impact Forum in Seoul \*

## New Partners for Changes: UN and the World Academic Community

강낙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영기획실장

현재 UNAI(UN Academic Impact)에는 전 세계 590여개 대학이 가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동대를 비롯해 45개 대학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NAI가 지지하는 10개 기본원칙 중 ‘고등교육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for Higher Education Systems)’의 글로벌 허브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허브기관 선정, 포럼 운영, UNAI ASPIRE(UNAI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through Education)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 등 UNAI 선언을 실천적 활동으로 연계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올해는 반기문 사

무총장이 2008년 대학이 중심이 되는 UNAI를 선언한 이후 실제로 운영이 추진되는 첫 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이처럼 시작점이 되는 의미있는 시기에 UN과 협력하여 ‘2011 UNAI Forum in Seoul’을 8월 10일~12일까지 개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김황식 국무총리, Michael Adams 세계대학총장협회 회장, Getachew Engida UNESCO 사무차장, 세계 10개 ‘UNAI 허브 대학’ 총장을 비롯해 국내 대학총장 등 27개국에서 39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개최식에서 김영길 회장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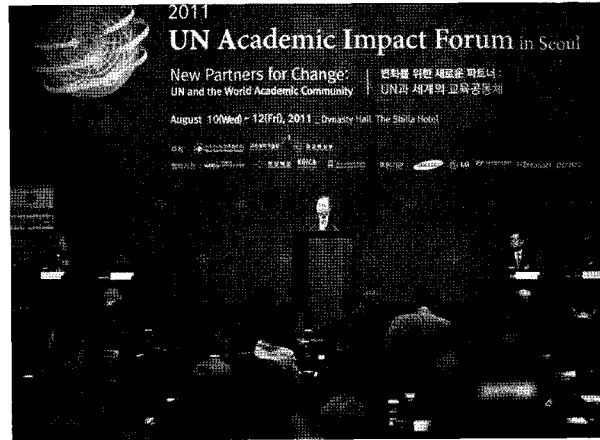
사,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개회사, 김황식 국무총리와 Getachew Engida UNESCO 사무차장이 축사를 진행하여 더욱 의미있는 자리 가 되었다.

개회식에서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였던 한국이 어떻게 교육과 개발을 통해 가난 문제를 해결하고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했는지를 논의하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아카데미 단체가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꿀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60년전만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졌고 전후 상처로 고통받는 곳이었지만 우리에게겐 사람이 있었다.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국가가 이제는 G20을 개최하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교육의 힘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돕고자 하며,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열정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Getachew Engida UNESCO 사무차장도



축사를 통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고등교육의 협력은 근본적인 공공선이며, 유엔인권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능력 본위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학간의 협력이 깊어지고 있지만 좀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관은 학생과 세계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Michael Adams 세계대학총장협회 회장(미국 페어레이 디킨슨대 총장)은 “2025년을 결정짓는 다섯가지 주요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으며, ‘매년 세계 인구의 20%가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 새로운 지식의 홍수 등과 같이 2025년의 예측가능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첫째날 세션1의 주제발표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을 통한 빈곤 극복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개발경험(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

원 교수), 한국의 개발경험의 시사점(Haider Ali Khan, 미국 덴버대학교 교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사고와 상상력의 아웃소싱: 한국으로부터의 교훈(Kelechi Kalu,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Haider Ali Khan이 발언한 한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교훈과 더불어 한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들에게 원조와 전문지식을 확대하고 있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계 정치경제 속에서 한국은 창의적인 역내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더욱 폭넓고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세션2의 주제발표는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지구책임적 문명 건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폭넓은 개발 의제(Ebba Dohlman, OECD 상임고문)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개발 효과(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World Friends Korea를 통한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최대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 등 우리나라의 활동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함께한 패널토의에서도 녹색성장 정책 사례와 다양한 개발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둘째날은 개발 과정에서의 교육의 역할,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세션3의 주제발표는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소장), 여성역량 신장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강화(신혜수, UN인권정책 한국센터 대표), 아프리카 성인 문맹자를 위한 한국형 비정규교육 모델의 적용가능성(전택수, 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엔아카데미 임팩트의 고등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적 허브로서의 한동대학교(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기업가 정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George Kim, 한동대학교 교수) 등과 같이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인적자원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며, 개도국에서도 실질적이고 개발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와 패널토의가 있었다.

세션4에서는 국제 교육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한 UNESCO의 역할(Getachew Engida, UNESCO 사무차장), 호주·동남아시아·한국의 고등교육 분야의 전략적 네트워크와 협력(서중석,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교수, Kua Wongboonsin, 태국 Chulalongkorn 대학교 교수), 미국의 ACE-HED의 North-

South 협력(Tully Cornick, 미국 교육협의회 전무이사) 등과 같이 역량개발이 학생에게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서 전략적인 허브가



필요하다는 점, 국제 협력의 차원에서 한방향 이 아니라 협력을 강화하고 동등함을 지향하는 양방향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고등 교육 파트너십의 중요성과 기존의 파트너십과 다른 남남북 파트너십 모델에 대한 제시 등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의 역량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셋째날은 UNAI Hub 대학 대표자 및 학생대표 회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혁신과 개혁을 촉진하는 학생활동'을 의미하는 UNAI ASPIRE를 통해 UNAI의 정신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이 주도하여 기획한 각 프로젝트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Ramu Damodaran(UNAI 사무국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공동체와 생각을 나누어야 하며, UN과 정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학문과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교육공동체의 역할, 협력, 리더십 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시영 전대사도 폐회사를 통해 "UN이 창설되었던 그 시기와 비교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 UN과 교육 공동체, 또 UNAI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 UN과 세계의 교육공동체(New Partners for Changes: UN and the World Academic Community)"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2011 UNAI Forum'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실행함에 있어 한국이 그동안 개발과 교육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전 세계 교육기관들이 UN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분야를 개발하고, 어젠더를 확장하여 참여를 모색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었다.

특히,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개도국의 국민문제 해결과 능력 배양, 지속가능한 개발 및 국제시민교육 등을 위해 10개 항목의 기본 원칙을 제정하여 전 세계 대학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최소 하나 이상의 강령을 실천토록 권장하는 UNAI를 실천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빈곤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과 파트너십의 공유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전략 패러다임을 알림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OECD/DAC 회원국, G20의 장국으로서의 한국 및 한국 대학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